

제주도 청동기시대 전기 방형계주거지의 계통에 대한 검토
-삼양동 일대 유적을 중심으로-

오 원 홍 (제주고고학연구소)

요 약

제주도 청동기시대 전기는 상모리유적의 조사성과를 중심으로 한 시기구분과 편년이 주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삼양동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방형계주거지와 新出의 유물들은 혼암리계→역삼동계로의 자체변천에 의한 一元的 展開보다는 계통의 차이에 의한 二元的 展開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주도 방형계주거지의 특징은 한반도 청동기시대 전기 방형계주거지에 비해 매우 작은 규모이며, 구심구조의 주거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 방형계주거지는 중서부지역, 호남지역, 대구지역과 유사하며 시기는 전기 마지막 단계로 판단된다. 그 중에서 편구옹의 존재는 중서부지역과 제주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주상편인석부와 유병식석검 등 新出의 유물을 통해 제주도 내에서 사회 성격이 크게 변화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주요어 : 제주도 청동기시대, 상모리유적, 삼화지구유적, 방형계주거지, 편구옹

I. 들어가기

제주도 청동기시대 전기의 경우 상모리유적¹⁾의 조사성과를 중심으로 한 시기구분과 편년이 주를 이루어 왔다²⁾. 하지만 상모리유적 조사 이후 현재까지 제주도에서 혼암리계토기는 매우 소량 확인되는 반면, 역삼동계토기는 제주도 전역에서 확인되고 있어 지역적인 분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모리유적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방형계주거지를 비롯한 新出의 유물들이 확인되고 있는 양상으로 볼 때, 상모리유적에 처음 유입된 혼암리계토기가 점차 문양이 소멸되고 제주도 내에서 자체 확산되었다는 기존의 연구 성과에 대해 현 시점에서 축적된 자료를 통해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상모리유적으로 대표되는 혼암리유형이 제주도 내에서 지역적 분포가 한정된 반면, 역삼동유형은 제주도 전역에서 확인된다는 것은 자체 변천에 의한 확산의 가능성도 있지만, 새로운 주민집단의 유입 등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제주도의 청동기시대 전기가 혼암리계→역삼동계로 자체 변천에 의한 一元的 展開가 아닌 계통의 차이에 의한 二元的 展開의 시각으로 연구하고

1) 제주대학교박물관, 1990, 『상모리유적』

2) 이청규, 1995, 『제주도 고고학 연구』, 학연문화사.

고재원, 2009, 「제주지역의 청동기시대-2000년대 조사성과를 중심으로-」, 『섬, 흙, 기억의 고리』, 국립제주박물관.

박경민, 2012, 『제주도 무문토기문화의 유입과 전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창화, 2013, 「제주도 고고학 30년, 발굴과 그 성과」, 『호남고고학회 20년, 그 회고와 전망』, 제21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자 하며, 그 중에서 삼양동 일대를 중심으로 확인되는 방형계주거지의 계통과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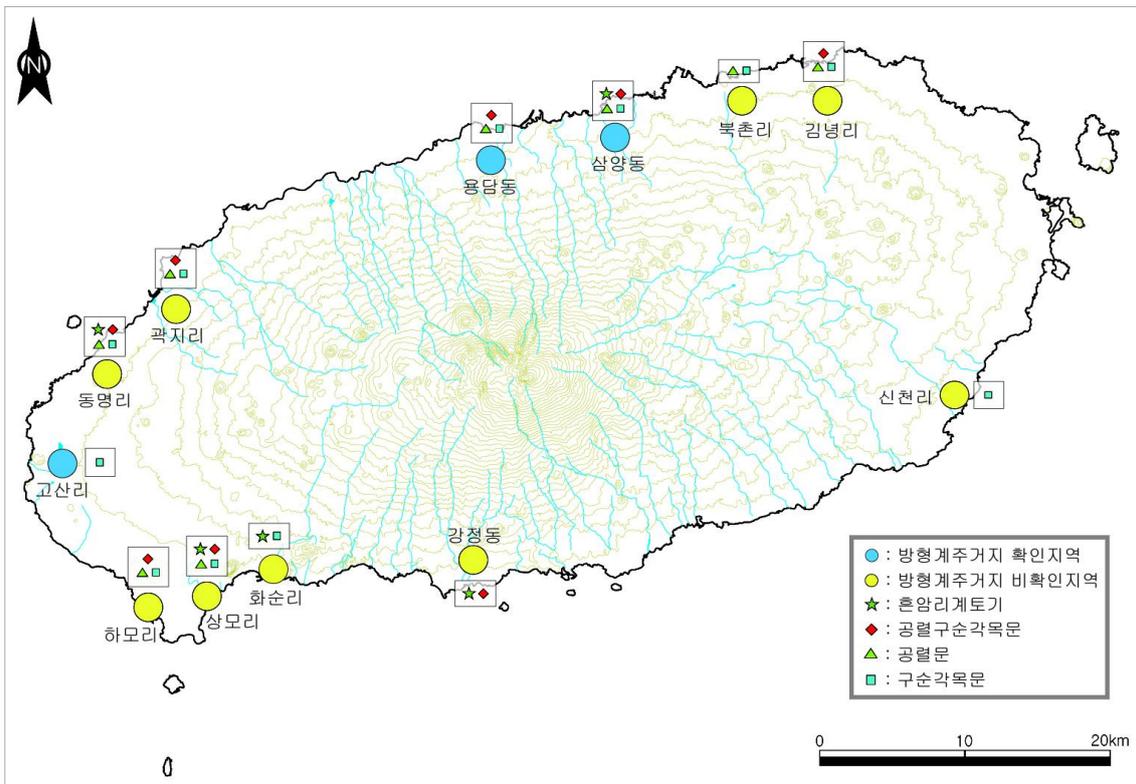
II. 방형계주거지의 분포와 특징

제주도 청동기시대 전기 유적은 크게 12개의 지역에서 확인되며, 방형계주거지가 확인되는 지역은 삼양동, 용담동, 고산리이다(도면 1). 현재까지 제주도에서 청동기시대 방형계주거지는 총 92기가 확인되었으며, 그 중 대규모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삼화지구유적을 중심으로 한 삼양동 일대에서 총 89기가 확인되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용담동에서 2기, 고산리에서 1기가 확인되었다(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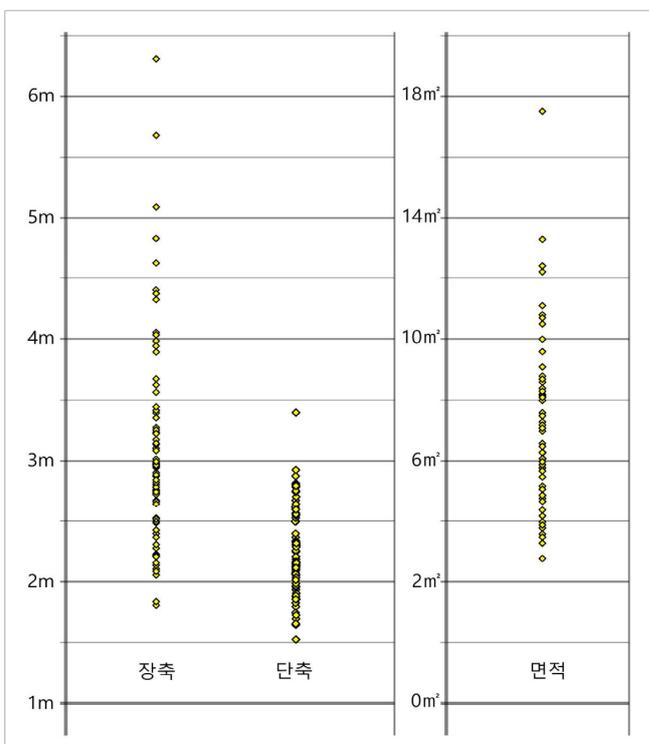
A	B	C	D	E	F	G	H	I	J	K	L	M	N	합계
51 ³⁾	5	20	3 ⁴⁾	2	3	1	1	1	1	1	1	1	1	92
- 범 례 - A : 삼화지구 개구역 유적, B : 삼화지구 나(III-1)구역 유적, C : 삼화지구 나(III-3)구역 유적, D : 삼화지구 나(III-4)구역 유적 E : 삼양동 제주세무서 직원사택부지내유적, F : 삼양초등학교유적, G : 삼양동 2177-4번지유적, H : 삼양동 2132-1번지유적 I : 삼양동 2181-29번지유적, J : 삼양동 2181-15번지유적, K : 삼양동 2137-10번지유적, L : 용담동 694-4번지유적, M : 용담동 694-3번지유적, N : 고산리유적														

표 1. 제주도 청동기시대 방형계주거지 현황

- 3) 보고서에 의하면 송국리형주거지 1기를 제외하고 방형계주거지는 총 50기가 확인되었다. 그 중 48호 주거지는 부정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한편 108호·114호 수혈유구는 본 유적에서 확인되는 방형계주거지와 형태와 규모가 유사하기 때문에 주거지로 편입하였다.
- 4) 보고서에 의하면 송국리형주거지 1기를 제외하고 총 4기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그 중 1호 주거지는 직경 180cm 내외의 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도면 1. 제주도 청동기시대 전기 유적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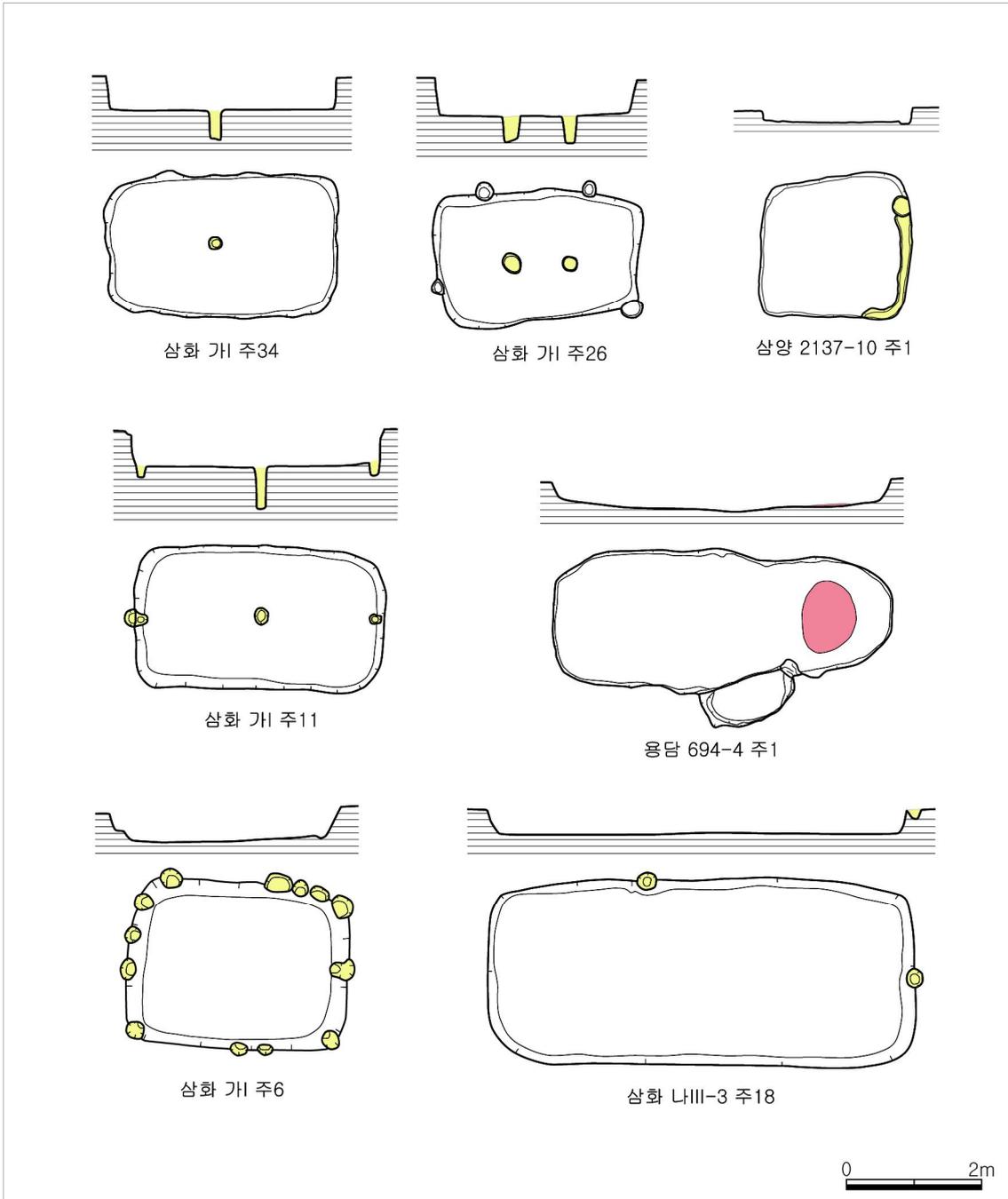


도면 2. 삼양동 일대 방형계주거지 장·단축 및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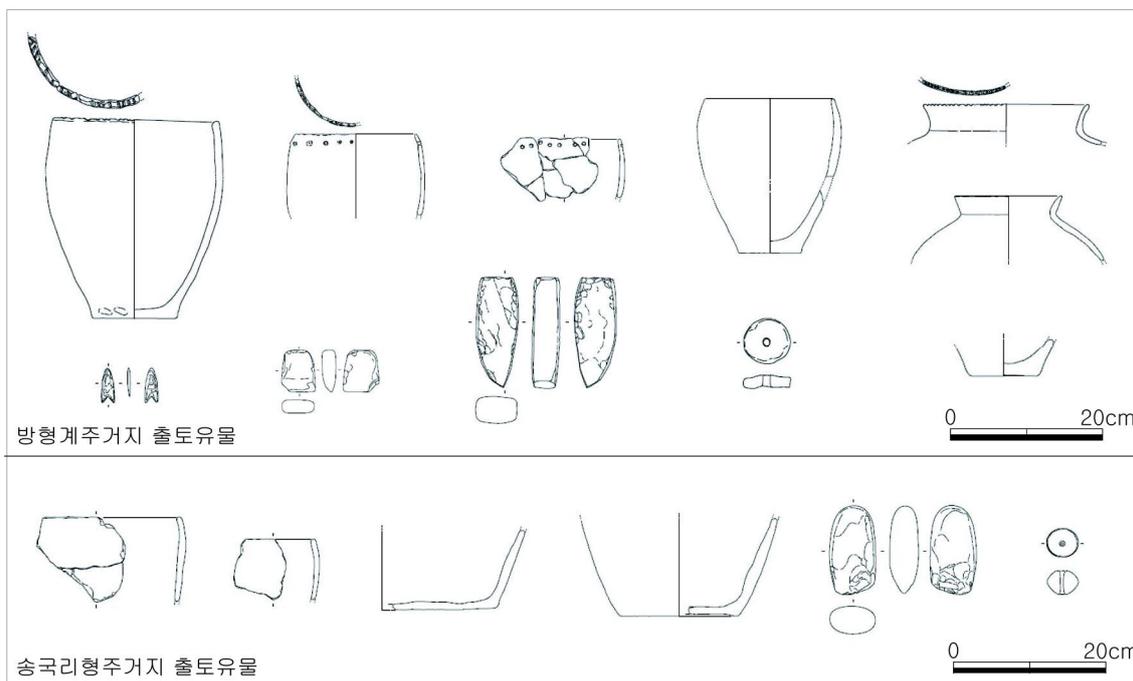
다음으로는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방형계주거지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특징은 한반도 청동기시대 전기 방형계주거지에 비해 매우 작은 규모라는 것이다.

가장 많은 방형계주거지가 확인된 삼양동 일대의 경우 장축은 대부분 2.0m 이상에서 4.0m 미만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6.5m를 넘는 주거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단축은 1.5m 이상에서 3.0m 미만이 대부분이다. 면적의 경우 3.0m² 이상에서 18.0m² 미만까지 확인되는데, 4.0m² 이상에서 10.0m² 미만이 대부분이다(도면 2). 용담동의 경우 694-3번지 1호 주거지는 11.2m², 694-3번지 1호 주거지는 10.5m², 고산리유적의 경우 3호 주거지가 9.8m²로서 삼양동에서 확인되는 방형계주거지의 면적과 유사하다.

두 번째 특징은 구심구조의 주거형태라고 할 수 있다. 내부시설로 저장혈은 확인되지 않으며 주거지 중앙에 주혈 1기 혹은 2기, 주거지 장축선상으로 주혈 3기가 확인되며, 주거지 벽체에 다수의 주혈이 확인된다. 그 외에 벽체 일부분에 벽구가 설치되거나 무시설식노지가 확인되는 예가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무주혈식이 확인된다(도면 3).



도면 3. 제주도 방형계주거지



도면 4. 삼화지구 가1 구역 방형계주거지·송국리형주거지 출토유물

삼양동 일대 유적에서 확인되는 방형계주거지에서 유물은 토기류로 (심)발형의 공렬구순 각목문, 공렬문, 구순각목문토기와 호형의 구순각목문, 무문양토기가 확인된다. 석기류는 삼각만입촉, 편평편인석부, 주상편인석부 등이 확인된다. 한편 방형계주거지가 밀집된 삼화지구유적에서 확인되는 송국리형주거지에서는 일부 구순각목문이 확인되지만 대부분 무문양의 (심)발형토기가 확인된다. 평면형태를 달리하는 두 주거지간 출토유물양상의 상이성은 이 뿐만이 아니다. 저부의 형태는 방형계주거지의 경우 내면의 형태가 'U'자형에 가까운 반면 송국리형주거지의 경우 내면의 형태가 밀판과 동체부를 따로 접합시킨 형태이다. 토제방추차의 경우 방형계주거지는 단면 원판형만이 확인되는 반면 송국리형주거지에서는 단면 주판알형이 확인된다(도면 4).

이상으로 제주도 청동기시대 방형계주거지의 분포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방형계주거지는 삼양동을 중심으로 용담동과 고산리에서 일부 확인되고 있지만 그 외의 전기 유적에서도 확인될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면적은 4.0㎡ 이상에서 10.0㎡가 대부분으로서 한반도 청동기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방형계주거지에 비해 매우 작은 편이다. 내부시설의 경우 저장혈은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작은 주거면적과 관련이 있을 것이며, 주거지 외부에서 확인되는 각종 수혈유구와 소성유구가 그 역할을 대신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주혈의 배치를 통한 구심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다. 출토유물의 경우 대부분 역삼동계토기가 주류를 이루며 송국리형주거지와는 저부의 형태와 방추차 등 상이성을 보이고 있다.

Ⅲ. 한반도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비교와 방형계주거지의 시기 설정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방형계주거지에 대해 반송리유적에서 확인되는 주거지와 비교하거나⁵⁾, 자체적으로 발달한 독특한 문화일 가능성⁶⁾이 높다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방형계주거지의 계통에 대해 반송리유적과의 관련성이나 제주도에서 자체 발달된 주거지라기보다는 중서부지역의 아산 명암리유적 11지점에서 확인되는 소형수혈유구에 주목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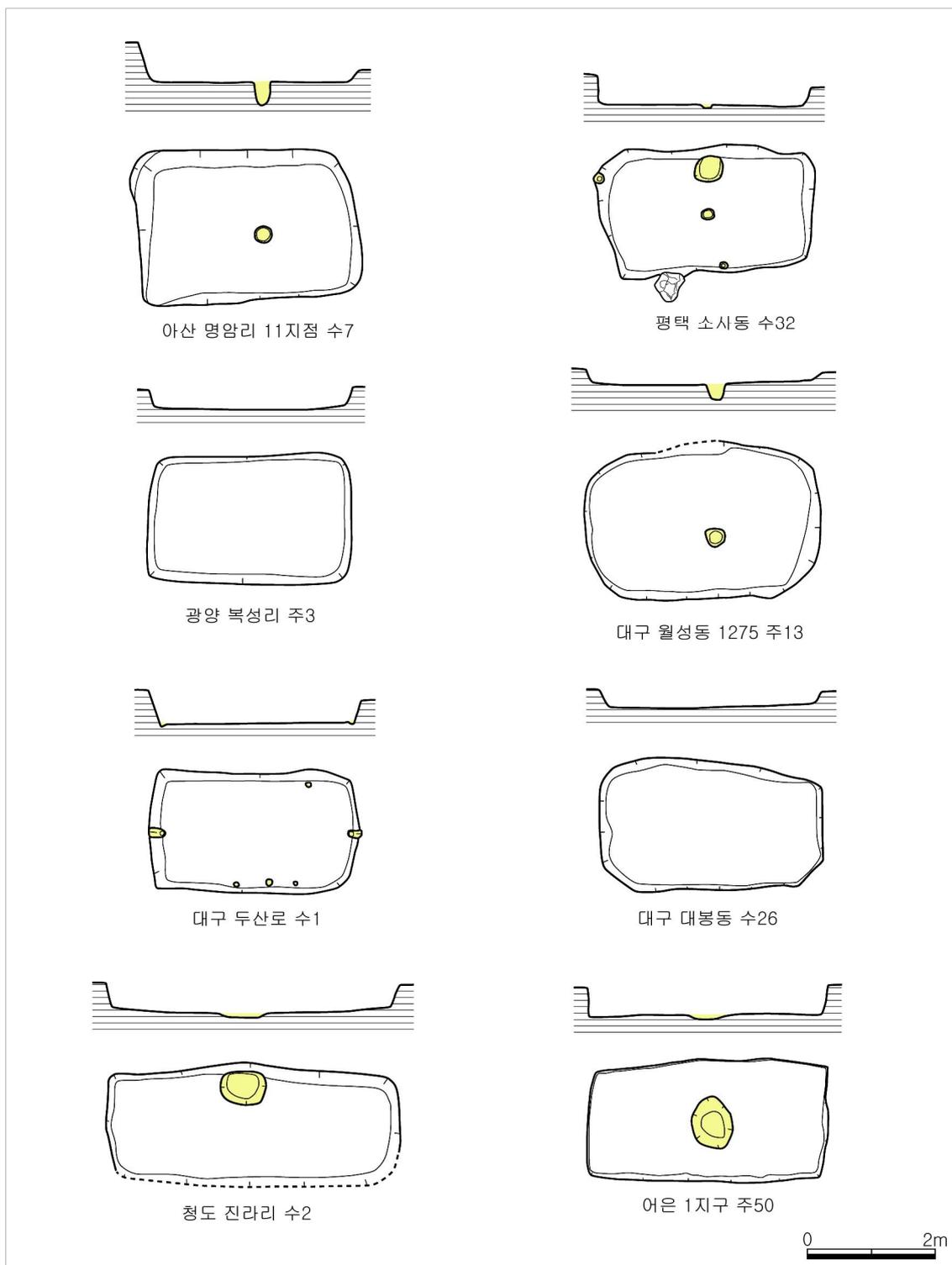
아산 명암리유적 11지점에서는 소형수혈유구 33기가 조사되었다. 그 중 소형수혈유구의 경우 전기의 주거지에 비해 현저히 작은 규모로서 내부시설에 따라 무시설식노지, 중앙주혈식, 무시설식으로 나눌 수 있다. 면적의 경우 최소 1.88㎡에서 최대 6.54㎡까지 확인되는데, 보고자에 의하면 3.5㎡ 이상의 면적은 거주가 가능한 유구로 볼 수 있다고 한다⁷⁾.

아산 명암리에서 확인된 소형수혈유구에 대해 나건주는 노지가 설치되고 어느 정도의 면적이 확보된 소형수혈유구는 특수한 목적의 주거유구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구심구조의 중앙주혈이 확인되는 소형수혈유구의 경우 송국리형주거지와 일정한 차이는 있지만, 전기의 세장방형주거지보다 후행하고 분화되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시기적인 위치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일정한 공통점을 들며 송국리형주거지 형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명암리유적 11지점에서 확인된 소형수혈유구는 전기의 세장방형주거지에서 동거하고 있던 복수의 세대 또는 거주단위라 점차 분화되면서 송국리유형문화로 이행되어 가던 과도기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유구로 이해하였다⁸⁾. 宮里修는 아산 명암리유적을 중서부지역 취락구성 Ⅲ유형으로 보았는데, Ⅲ유형 자체를 역삼동유형에서 선송국리유형으로의 이행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앙주혈을 갖춘 구조를 수혈유구에 대해 Ⅱ유형에서 Ⅲ유형을 거쳐서 선송국리유형이 정형화된 과정은 단계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⁹⁾. 김승옥은 아산 명암리, 천안 백석동, 청도 진라리 등의 유적에서 20㎡ 미만의 유구에 대해 역삼동 방·소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러한 초소형 주거지가 세장방·대형주거지가 유행하던 전기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¹⁰⁾. 현대환은 아산 명암리유적 소형수혈유구에 대해 선송국리유형에 해당하는 Ⅱ단계로 보았으며, Ⅱ단계는 후기 전반에 해당하는 시기로 유물상에 있어서 기존의 선송국리유형 단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¹¹⁾. 허의행은 아산 명암리유적에서 확인되는 수혈유구 일부는 주거지에 포함할 수 있으며, 중앙주혈을 갖춘 소형수혈유구는 기존 수혈유구와는 성격을 달라 보이며 수혈 내부의 보편적인 시설물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¹²⁾.

아산 명암리유적에서 확인된 소형수혈유구에 대해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주거유구의 가능성, 전기 말 세장방형주거지의 분화, 선송국리유형으로의 이행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유구는 평택 소사동유적¹³⁾ 32호 수혈유구와도 유사하다. 이러한 유구가 아

5)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1, 『제주 도련동 유적(614-1번지)』, p.146
 박경민, 2012, 전계서, p.42
 6) 박경민, 2012, 전계서, p.82
 7) 충청문화재단연구원, 2003, 『아산 명암리 유적(11·3지점)』, p.239~243
 8) 나건주, 2013,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성장과 송국리유형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한반도 중서부지방 자료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76~179
 9) 宮里修, 2005, 「무문토기시대의 취락구성 -중서부지역의 역삼동유형-」, 『한국고고학보』 56, p. 82
 10) 김승옥, 2006,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편년과 사회변천」, 『한국고고학보』 60, p. 19
 11) 현대환, 2007, 「청동기시대 방형주거지에 관한 고찰 -중서부지방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68
 12) 허의행, 2013,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61

산과 평택 등 중서부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며, 대부분 역삼동계토기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제주도와 유사성이 확인된다.



도면 5. 한반도 청동기시대 소형 방형계주거지

13) 고려문화재연구원, 2008, 『평택 소사동 유적』

호남지역에서는 광양 복성리유적¹⁴⁾ 1~3호 주거지, 광주 장자유적¹⁵⁾ 7호 주거지 등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방형계주거지와 유사한 주거지가 일부 확인되며 역삼동계토기가 확인되는 것 또한 유사하다. 대구지역에서는 주거지 중앙에 주혈 1기가 확인되는 유구는 서변동유적¹⁶⁾ 36호 주거지와 대봉동유적¹⁷⁾ 12호 · 33호 · 34호 수혈유구, 수성초등학교유적¹⁸⁾ 12호 주거지, 월성동 1275번지¹⁹⁾ 13호 주거지 등이 있다. 그리고 주거지 장축선상으로 벽체에 주혈이 확인되는 유구는 두산로유적²⁰⁾ 1~2호 수혈유구가 있다.

한편 진라리유적²¹⁾에서 규모는 유사하지만 벽면에 연접해서 타원형수혈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진라리유적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유구에 대해 보고자는 단순한 수혈이기보다는 제작장으로 판단되는 건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대봉동유적의 보고자 역시 이러한 유구에 대해 규모와 형태로 볼 때 수혈주거지와 유사하다고 하였다. 출토유물은 역삼동계토기가 주류를 이룬다. 남강유역의 경우 어은식주거지²²⁾ 혹은 하촌리식주거지²³⁾가 제주도 방형계주거지와 유사성이 확인되지만, 청도 진라리유적에서 확인된 수혈유구처럼 주거지 내부에 타원형수혈이 확인된다²⁴⁾.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방형계주거지에서는 주혈만 확인되고 타원형수혈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청도지역이나 남강유역보다는 중서부지역과 호남지역, 대구지역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제주도 방형계주거지의 시기를 설정하고자 한다. <표 2>는 중서부지역의 아산 명암리유적, 호남지역의 광양 복성리유적과 광주 장자유적, 제주도 방형계주거지의 방사성 탄소연대를 비교한 것이다. 방사성탄소연대의 채택과 조정 절차는 황재훈의 논문²⁵⁾을 인용하여 표준오차 범위가 ±100년을 상회하는 탄소연대와 3200~2400 B.P.를 벗어난 연대, 복수의 탄소연대 중 나머지 시료와 100년 이상의 시차를 보이는 탄소연대는 제외하였다.

이상의 방사성탄소연대의 채택에 의해 종합한 결과 아산 명암리유적에서는 2900~2500 B.P., 광양 복성리유적은 2840~2830 B.P., 광주 장자유적은 2500 B.P., 제주도 방형계주거지는 2860~2590 B.P.의 연대가 확인되었다. 특히 제주도 방형계주거지의 경우 2800~2600 B.P. 사이에 밀집되어 확인되며, 일부는 아산 명암리유적 소형수혈유구보다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산 명암리유적 소형수혈유구의 방사성탄소연대 자료가 3기에 불과하지만, 소형수혈유구가 전기의 세장방형주거지에서 동거하고 있던 복수의 세대 또는 거주단위라 점차 분화된 결과라면 본 유적에서 확인된 전기 주거지와 유사한 시기의 유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현재까지 확인된 소형수혈유구의 방사성탄소연대보다 더 이를 가능성도 있다.

14) 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구례 송정유적 · 순천 건천유적 · 광양 복성리유적 · 광양 동주유적』
 15)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광주 장자유적』
 16) 영남문화재연구원, 2002, 『대구 서변동취락유적 I』
 17)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6, 『대구 대봉동 마을유적』
 18)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대구 수성초등학교 부지내 상동유적발굴조사보고서』
 19) 영남대학교박물관, 2006, 『대구 월성동 1275유적』
 20) 영남문화재연구원, 2005, 『대구 두산로유적』
 21) 영남문화재연구원, 2005, 『청도 진라리유적』
 22) 庄田愼矢, 2009, 『南韓 靑銅器時代 生産活動과 社會』, 학연문화사, p.65
 23) 김병섭, 2011, 『남강유역 하촌리형주거지에 대한 일고찰』, 『경남연구』 제4집, p.5
 24) 庄田愼矢와 김병섭은 이러한 주거지를 청동기시대 후기 중에서 이른 시기로 판단하고 있는데, 타원형수혈이 확인된다는 점과 전기의 유물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필자도 이들의 의견에 동의한다.
 25) 황재훈, 2014, 『무문토기시대 전기 사회의 상호작용과 문화변동 -한반도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08

유적	유구	중심연대	측정연대	시기	측정연대	중심연대	유구	유적
삼화 나Ⅲ-4	주5	B.C.1060	2860±50	2900 B.P.	2900±60	B.C.1105	주14	명암리 11지점
					2840±50	B.C.1050	주1(1)	광양 북성리
					2830±50	B.C.990	주1(2)	광양 북성리
삼양초등학교	주3	B.C.950	2780±60	2800 B.P.				
삼양초등학교	주1	B.C.885	2750±50					
삼화 가 I	주7	B.C.865	2720±60					
용담 694-3	주1	B.C.860	2720±50					
삼양초등학교	주2	B.C.853	2700±50					
삼양 2137-10	주1	B.C.820	2650±40	2700 B.P.	2660±60	B.C.845	수11	명암리 11지점
					2650±40	B.C.810	주7	명암리 11지점
					2650±40	B.C.810	수7	명암리 11지점
삼화 가 I	주17	B.C.810	2640±60					
고산리Ⅱ	주3	B.C.810	2640±50					
삼화 가 I	주9	B.C.802	2630±50					
삼양 2181-29	주1	B.C.785	2590±40	2600 B.P.				
				2580±60	B.C.790~590	수23	명암리 11지점	
				2500 B.P.	2500±60	B.C.640	주7	광주 장자

표 2. 제주도 방형계주거지 · 아산 명암리 · 호남지역 소형 방형계주거지 방사성탄소연대

이형원(2009)	허의행(2013)	나건주(2013)	황재훈(2014)
역삼동 · 혼암리유형 I기 전기 전엽	역삼동유형 I단계 B.C. 12~10C	전기전엽 3140~2790 B.P.	1단계 3200~2950 B.P.
역삼동 · 혼암리유형 II기 전기 중엽	역삼동유형 I·II단계 B.C. 11~9C	전기 중엽 3040~2790 B.P.	2단계 2950~2830 B.P.
역삼동 · 혼암리유형 III기 전기 후엽	역삼동유형 IV단계 B.C. 10~8C	전기 후엽 2890~2520 B.P.	3단계 2830~2700 B.P.

표 3. 중서부지역 연구자별 청동기시대 전기 단계 구분

<표 3>은 중서부지역 연구자별 청동기시대 전기 단계 구분으로서, 제주도에서 확인된 방형계주거지의 방사성탄소연대와 대비하면 모두 전기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연구자별로 전기 마지막 단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형원의 역삼동 · 혼암리유형 III기는 가락동식토기의 요소가 거의 사라진 단계로 역삼동식토기가 주체를 점하는 시기이며, 서울 역삼동, 화성 천천리, 천안 쌍용동, 아산 명암리유적 등이 있다고 하였다²⁶⁾. 허의행의 역삼동유형 IV

26) 이형원, 2009, 「청동기시대 취락구조와 사회조직」, 서경문화사, p.51

단계는 다양한 토기형식의 등장과 함께 문양이 완전히 소멸되어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시기이며, C·D·E형 호형토기가 주를 이루고, C형 마연토기가 등장 후 소멸된다고 하였다. 대표적인 유적으로 천안 불당동 2·3지점, 아산 명암리 11지점, 당진 자개리 유적 등이 있다고 하였다²⁷⁾. 나건주의 전기 후엽은 이중구연과 퇴화이중구연의 빈도가 낮아지며, 이와 연동하여 구연부에 문양을 시문하는 행위가 점차 사라지고, 말기에는 단순구연과 공렬문과 무문양토기로만 구성된다고 하였으며, 대표적인 유적으로 아산 명암리유적, 아산 남성리유적 등이 있다고 하였다²⁸⁾. 황재훈의 3단계는 2단계 이래 본격화된 역삼동유형의 확산, 경기 북서부지역 각형토기문화유형과 금강 중상류역의 미사리문화유형의 점차적인 소멸과 같은 문화변동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아산 명암리유적 11지점 등 새로이 중형 규모의 취락이 들어선다고 하였다²⁹⁾.

이상으로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방형계주거지를 한반도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비교하고 시기를 설정하였다.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방형계주거지는 형태와 규모의 유사성으로 보아 중서부지역과 호남지역, 대구지역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방형계주거지의 시기는 방사성탄소연대와 중서부지역의 청동기시대 전기 단계 구분, 그리고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변천에 있어서 미사리유형→가락동·역삼동유형→휴암리유형으로 이동함에 따라 주거지의 규모는 대형→대형과 중형→소형으로 바뀌어 가는 양상³⁰⁾을 보더라도 제주도 방형계주거지는 청동기시대 전기 마지막 단계로 판단된다.

IV. 新出의 유물을 통한 방형계주거지의 계통과 성격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방형계주거지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중서부지역과 호남지역, 대구지역에서 확인되는 양상과 유사하다. 고고학이 어떠한 방법론이라도 유물이나 유구의 공반상이 같다면, 한반도 내에서는 지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는 두 유적이라도, 그 양자는 동일 시기로 뒤야하는 의견³¹⁾을 참고하자면, 제주도 방형계주거지의 시기는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 혹은 말기로 판단된다.

여기에서는 제주도 방형계주거지의 계통에 대해 상모리유적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新出의 유물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제주도 방형계주거지의 계통을 살펴볼 수 있는 유물로 원저호와 다른 형태의 마연토기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것은 구연이 외반하고 동체의 형태가 주관알에 가까우며 저부는 평편한 형태를 지닌 옹형에 가까운 마연토기로서 편구옹³²⁾이라 부르기도 한다. 편구옹은 삼화지구유적에서 완형에 가깝게 확인되었다(도면 6-1). 삼화지구 나Ⅲ-3구역의 방형계주거지인 10호 주거지에서 확인된 편구옹의 경우³³⁾ 기형은 축약된 저부에 동체부 중위에서 최대경을 이루며 내만하여 구연부에서 외반하는 형태이다. 공반유물로는 공렬구순각목문토기가 있다. 삼화지구 가Ⅰ구역 156호 수

27) 허의행, 2013, 전계서, p.50~53

28) 나건주, 2013, 전계서, p.44

29) 황재훈, 2014, 전계서, p.163, 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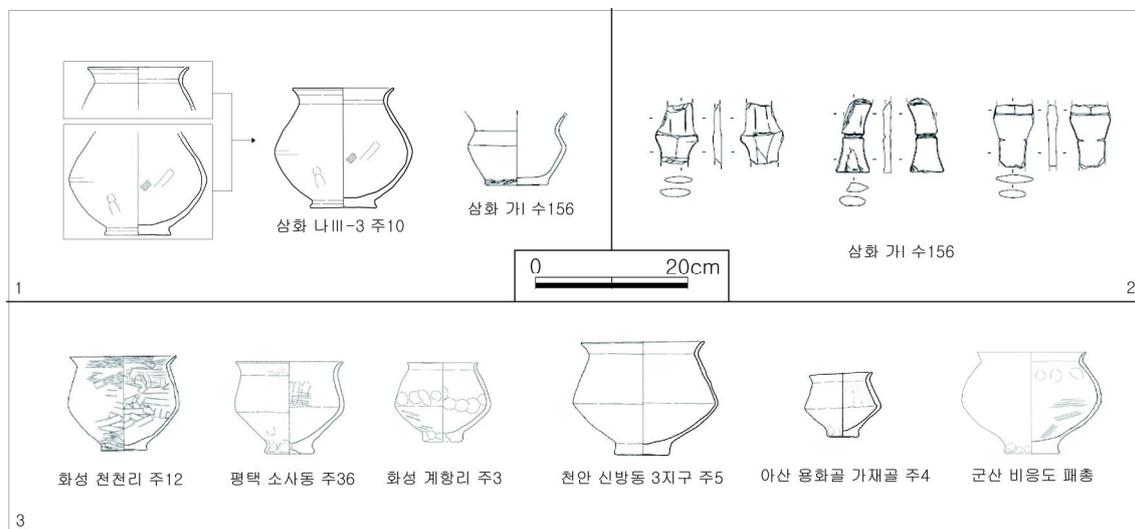
30) 김승옥, 2006, 전계서, p. 12

31) 안재호, 2006, 「청동기시대 취락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32

32) 김지현, 2010, 「청동기시대 전기의 대부토기에 대한 검토-대부토기의 기원을 중심으로-」, 『고고학』 9-2호, p.10

33) 보고서에 의하면 구연부와 저부편이 따로 기술되어 있으며 모두 동일한 개체분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필자가 추정복원한 것이다.

혈유구에서 확인된 편구옹의 경우 기형은 완만한 저부와 동체부 중위에서 비교적 심하게 내만하여 구연부에서 외반하는 형태이다. 공반유물로는 박경민의 II·III형 마연토기 원저호³⁴⁾와 역삼동계토기, 단면 원판형의 방추차, 유병식석검(도면 6-2) 등이 있다.



도면 6. 제주도 출토 편구옹(1), 편구옹 공반 유병식석검(2), 한반도 출토 편구옹(3)

편구옹과 대부편구옹은 중서부지역에서만 존재하며, 편구옹의 경우 중국 요동반도의 영향으로 중서부지역에 출현하여 대부토기와 결합된 대부편구옹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편구옹의 출현 시점은 기원전 13세기 무렵으로 추정되며, 편구옹이 단독으로 존재하던 시기, 기원전 12~10세기 무렵에 편구옹, 옹형토기와 같은 외래계토기에 대부편구옹, 대부옹 등의 기형이 나타나며 기원전 9세기 이후까지 편구옹과 공존하였다고 여겨지고 있다³⁵⁾. 한편 편구옹은 호남 북서부지역의 군산 비응도 패총³⁶⁾에서도 확인되며 혼암리계토기, 역삼동계토기와 공반되어 확인된다. 비응도 패총에 대해 김규정은 충남 서해안지역의 역삼동·혼암리유형의 분포권에 속한다고 보았다³⁷⁾.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편구옹이 제주도에서 확인되었다는 것은 중서부지역과 제주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호남 남해안지역이나 남강유역에서 확인이 안 되는 기종이 삼양동에서 역삼동계토기와 공반하는 양상에 대해 제주도 전기 무문토기의 전개가 상모리유적의 자체변천에 의한 일원적 전개가 아니라, 상모리와는 계통을 달리하는 이원적 유입과 전개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유력한 자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편구옹이 아닌가 한다. 이는 방형계주거지의 계통 또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라 판단된다.

그 외에 신출의 유물로 주상편인석부와 유병식석검을 들 수 있다. 주상편인석부는 삼화지구 가 I 구역 22호 주거지에서 구순각목문토기와 공반하였다. 주상편인석부의 최근 연구성과에 의하면 대부분 전기 후반에 집중되는 결과가 확인되었으며, 석재공구세트가 완비된 때는 전기 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³⁸⁾. 한편 편구옹이 확인되는 삼화지구 가 I 구역 156호 수혈유

34) 박경민, 2012, 전계서, p.39

35) 김지현, 2010, 전계서, p.28

36) 전북대학교박물관·목포대학교박물관, 2002, 『비응도·가도·오식도패총』

37) 김규정, 2013, 「호남 북서부 해안지역의 청동기문화」, 『한일취락연구』, 서경문화사, p.127

38) 배진성, 2013, 「주상편인석부의 재검토」, 『한국상고사학보』, 제82

구에서 공반된 유병식석검의 존재는 상모리를 중심으로 한 혼암리계토기단계보다 역삼동계 토기가 주류를 이루는 삼양동을 중심으로 계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으로 新出의 유물을 통한 방형계주거지의 계통과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편구옹의 존재는 중서부지역과 제주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방형계주거지의 계통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 그리고 주상편인석부와 유병식석검의 존재는 제주도 내에서 사회 성격이 크게 변화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V. 나가기

이상으로 제주도 청동기시대 방형계주거지의 계통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거구조의 유사성과 신출의 유물상을 통해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중서부지역을 손꼽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있다. 우선 중서부지역과의 지역적 거리 차이라든가 유입배경, 방형계주거지와 유물상 등의 물질문화가 외부에서 유입된 것인지 아니면 제주도 자체적으로 성립된 것인지, 상모리유적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존의 혼암리계→역삼동계로 자체 변천에 의한 一元的 展開를 이제는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된다.